



박상철 교수



이동윤 교수



김민진 교수



공진성 교수



지병근 교수



김 옥 교수



조정관 교수



홍인화 광주시의원



안평환 사무총장



황봉년 대표

“야권 패배 원인은 민주당-문재인-좌클릭 때문”

광주일보 후원 ‘18대 대선 사후분석 평가 토론회’ 지상중계

전남대와 조선대가 주최하고 광주일보가 후원하는 제18대 대선 사후분석 학술 세미나가 23일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1·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토론회엔 박상철 경기대 교수와 이동윤 신라대 교수, 지병근 조선대 교수, 김옥 배재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민진 경희대 교수·공진성 조선대 교수·광주일보 최권일 기자·조정관 전남대 교수·홍인화 광주시의회 의원·안평환 광주 YMCA 사무총장·황봉년 전라도닷컴 패고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1부에선 ‘전국적 과정’과 ‘영남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2부에선 ‘호남을 중심으로’와 ‘충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진행됐다.

다음은 토론회 주요내용.
◇박상철 경기대 교수=이번 대선 패배 이유는 문재인 후보자 및 민주통합당의 문제,

◇이동윤 신라대 교수= 이번 대선 결과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선거운동을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정권 교체에 좋은 기회를 스스로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부산과 경남지역의 민심은 과거와 달리 많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과거 전통적 표밭으로 인식되었던 지역의 지역주의 투표 성향에 있어서 점진적인 변화가 추동된 선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80% 이상의 유권자들이 여전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아직도 ‘TK’(대구·경북)에 근간을 둔 영남 지역주의 성향이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당정치의 재편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이번 대선에서 문



광주일보가 후원하고 전남대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조선대 사회과학연구원이 주관한 ‘제18대 대선 사후 분석(a post-mortem) 학술 세미나’가 23일 오후 광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지역 정치권 관계자와 학계·대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역주의·보혁대결 선거구도로 쓴맛 봐

安사퇴후 10일 지나도 선거운동 제안 안해

후보 단일화 및 야권연대 등 전략 부재, 지역주의 구도 견제, 이념 및 세대 갈등 함정 등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야권 후보에게 유리한 일대일 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리한 지역주의·보혁대결·인구구성 선거구도로 진행되면서 패배의 쓴맛을 봤다.

특히 민주당은 변화의 기회를 여러 번 있었음에도 변화의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차단했다.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철저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서 민심이반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또 민주당은 정세성 점검에 소홀했다.

민주당은 정계개편을 하지 않고선 만연 야당으로 간다. 민주당은 앞으로 혁신형 정계개편 또는 야권진보진영을 한데 모으는 ‘빅텐트형’ 정계개편방향으로 가야한다. 신당 창당형 또는 창조적 정계개편 방향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재인 후보에 대한 호남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는 단순히 지역감정에 의한 총동적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으로 형성된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심각한 지역편향성이 호남에서 나타났지만, 이는 단순히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남지역에서 오히려 악화됐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영·호남지역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관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영·호남지역에서 독점적 정당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정치적 대타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옥 배재대 교수=충청지역은 이번 선거 시작부터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지역이었고, 문재인 후보는 이러한 불리를 꺾 수 있는 적극적인 선거전략이 필요했지만 실패

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부산·경남지역에 너무 치중했고 선거구호와 공약 면에서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내용이 많았다. 결론적으로 충청 유권자의 실리적 성향을 고려할 때 전략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의 개혁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직적 차원에서의 개혁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며, 유권자의 새로운 가치에 근거한 내용적 변화를 담아내야만 할 것이다.

◇김민진 경기대 교수=대선 패배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중 안철수 후보와의 아름다운 단일화 실패는 대선 패배의 큰 요인 중 한가지다. 안 후보 사퇴 후 10일이 지나도 룩 문 후보 측에선 공동선거 운동을 제안하지 않았다. 문 후보 측에서 오히려 공동선거 운동을 원치 않았던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안 후보와 공동연합해서 대선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의문까지 든다. 안 후보는 거대 야당체제의 희생자다. 이번 대선은 가장 중요한 현상 중 하나가 양대 정당의 적대적 공존이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한다. 양대정당의 카르텔은 학계·시민사회단 체도 남지 못했다. 일각에선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야권이

호남인 전폭 지지는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

부산·경남 중심 정당정치 재편 논의 필요

처음부터 이길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선 이념성이 강한 사람보다 중도성향을 가진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민주당은 현 양당정당체제에서 정당의 이념의 폭을 더 넓게 잡아야만 한다.

◇공진성 조선대 교수=현 양당체제에선 지역주의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호남이 가진 딜레마는 해결할 수 없다.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의 후보를 찍을 것처럼 하다가 막바지엔 민주당을 찍는다. 양당카르텔 제도와 같은 제도적 변화를 폐하지 않는 이상 현재와 같은 호남인의 고민, 민주당의 고민 등 해결할 수 없다.

◇최권일 광주일보 기자=민주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특정계파와 주류가 정권교체 욕구보다 자신들의 권력에 더 욕심을 냈다. 아름다운 단일화 실패도 패배의 원인 중 하나다. 지난 4·11 총선 당시 부산의 민심을 끌어올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친노

세력이 당권을 잡으면서 실패했다.

당시 부산 민심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이 매우 거셌다. 그러나 민주당은 4·11 총선 실패를 12·19 대선에서도 그대로 이어갔다. 4·11 총선에 대한 자성은 전혀 없었다. 민심도 읽지 못했다. 민주당은 부산에서 50%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과는 기대치에 못 미쳤다.

중앙언론에선 광주·전남이 지역적 성향이 강하다고 보도하는데, 사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여론조사를 해보면 안 후보가 앞섰다. 민주당의 뒷발인 광주·전남에서 이 같은 결과는 그들에게 충격적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호남의 투표성향도 점차 바뀌고 있다.

◇조정관 전남대 교수=광주 민심이 많이 변했다. 우리가 민주당을 선택하는 이유는 지역감정이 아니라 정당 선호 때문이라고 본다. 정당 선호를 결정짓는 결정적 변수는

여전히 있다. 유권자가 자유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조작한다. 호남에 경쟁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문제의 해결은 제3정치세력, 다시 말해 비 민주당 성향의 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당 진형을 무너뜨리고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당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만들 수 있다.

◇홍인화 광주시의원=현재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혼란에 휩싸여 있다. 주류 측에선 대선 패배 책임을 특정세력에 물을 수 없는 공동책임론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주류 측은 친노 세력과 패권적 계파주의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저는 대선 승리를 위해선 정당과 정치력 있는 후보, 선거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4·11 총선 패배의 교훈을 외면했다. 또 문재인 후보인데 문 후보는 당내 경선과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압도할 정치적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민주당은 어떤 모델의 정계개편이든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당민주주의에 근거하지 않은 정당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정계개편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든 당 조직이 민의와 시대정신을 담지 않으면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이뤄질 수 없다.

◇안평환 광주 YMCA 사무총장=광주는 이번 대선에서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시민사회단체가 투표 참여 독려 운동을 한 덕분이다. 새누리당도 전남에서 두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너무 얇은 성찰과 반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황봉년 전라도닷컴 대표=민주당 대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는 언론이라고 본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전부터 지지율이 거의 50%였다. 방송을 통해 이미지를 잘 쌓아온 덕분이라고 본다. 언론은 박 당선인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포장, 즉 이미지를 잘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대안은 안철수 후보였다. 박 당선인과의 대결구도에서 안 후보는 충분히 승산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신의 기록권으로 안 후보를 누렸다. 기록권의 철저한 승리였다. 문재인 후보가 탈출해서 후보가 된 것은 아니다. 당내 최대계파와 조직의 힘을 통해 후보가 됐다. 이를 버리지 않고선 민주당의 미래는 부정적이다. /이종형기자 glee@kwangju.co.kr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 남구 백운동 준주거 3층상가주택 대지160㎡ 건평330㎡ 감정가3억3천만 최저가2억3천만
- ▷ 무안군 망운면 관리지역 3층편성시설 대지850㎡ 건평1146㎡ 감정가11억 최저가5억

단독주택

- ▷ 광산구 소촌동 2층단독주택 대지158㎡ 건평177㎡ 감정가19천만 최저가16천만
- ▷ 광산구 지평동 1층부가주택 대지208㎡ 건평76㎡ 감정가12천6백만 최저가11천8백만

공장및창고

- ▷ 광산구 월전동 평동공단내2층공장 토지5289㎡ 건물3587㎡ 감정가26억 최저가18억
- ▷ 광산구 도천동 하남공단내 2층공장 토지1504㎡ 건물996㎡ 감정가15억3천 최저가12억2천만
- ▷ 장성군 동화면 2층공장 토지1983㎡ 건물2320㎡ 감정가7억 최저가3억9천만
- ▷ 나주시 공산면 3층공장 토지29710㎡ 건물1826㎡ 감정가117억3천 최저가18억8천만

토지 매 매

- ▷ 장성군 삼서면 관리지역 전,임야 36996㎡ 감정가75억3천만 최저가3억7천만
- ▷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감정가2억2천만 최저가1억7천만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임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금당 공인중개사

매매·교환·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감정가 이하물건

- 금남로 대지 80 건평 300 감정 17억3천 10억3천
- 종창로 대지 27 건평 30 공시가 1억9천 매도 1억7천
- 요양병원직할 화순군 도곡온천지역 대지 1712건평 1681 대출10억 매도18억
- 광주역앞 4차선 도로 5층 건물 대지100 건평 370 대출 5억3천 5층은 공실 전세 6천 월 450 매도 7억원
- 서구 매월동 공구상가 1층과 2층 23평 매입 1억천 대출 7천 전세 6백만원에 월 39 매도 3백만원
- 함평군 월아면 요양시설, 정신병원 직할 대지 3369 건물 3동 1116평 대출 3억 매도6949천
- 양동 월파부근 신축건물 대지 132 건평 195 감정은 11억이상 임대없음 대출 4억 5천 매도 7억2천

건물매도

- 전원주택 담양읍신대 대지 275 주택 52평 1억4500
- 광주역앞 중동동 대지 108 건평 397 원룸6 투룸17 대출3억 전세 8천에 월4400만원선 7억
- 유동 상업지역 요양병원 직할 대지 928㎡(280평) 건평 7층 건물6487㎡(1952평) 매도34억
- 북구 우산동 대지 100평 건평 412평 대출 6억 보증금 8천에 월세는 900만원선 매도 10억
- 화순군 도곡온천 7층 대지 433 건평 158평 5억3천
- 봉황면 철처리 땅 770평 주택 31평 전원생활 적합 아파트나 상가 주택과 교환가능 1억6천

나대지

- 장버삼 작재면 산 44790평 화순군 동북면 전원생활 등 적합 평당 6천원(2억6천구백만원)
- 화정동 화정역 인근 대토번 준주거 334평 오피스텔형 생활주택직할 대출 10억 매도 17억 3천만원
- 함평 해보면 문장 4가리 100평 상가직할 1억 4천
- 비닐하우스 시설 나주시 봉황면 땅 1417평 시설 600평 농철 대출 1억3천 매도 2억원전만
- 북동 상업지역 300평 원룸 오피스텔 직할 7억8천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5가 광주교동센터 옆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 자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창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 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22식 207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95천 만원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상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함평면, 장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 T. 062) 371-1900 , 010-2006-0115
-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 급하게 처분하실 부동산이 있으신가요?
조용히 소리소문 없이 물건 처분에 드립니다.
- 수익형 부동산을 찾으시나요?
월세 수익과 매도 차익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 여유 자금이 있는데, 투자처를 찾고 계신가요?
전국 매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땅이 있으십니까?
은행 대출에서 건축, 분양까지 상담해드립니다.
- 골짜길 18층, 골짜길 9층, (상당환영)
- 전국 랜드마크 빌딩 다량 확보!
- 10억! 50억! 100억! 200억 물건 다양 보유 및 구함
- 고액 비밀 보장
- 모든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거나 개발하고 싶은분은
전화접수 후 사무실 내방하시면 귀한시간 내추신민들의
보답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맞춤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 한번의 인연으로 평생 고객에게 신뢰를 남기는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 매 물 ■

1. 서구 상무지구 메인도로 최고 상권 초대형빌딩, 최고 의 자리에 위치한 건물로서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상가. 대지 1,058평, 건평 4,295평.
2. 서구 상무지구 내 훌륭한 사무나. 대지 524평
3. 서구 상무지구 중심상업에 있는 건물로서 월세 수익률이 높은 빌딩. 대지 151평, 건평 939평.
4. 서구 상무지구 최고의 자리에 위치한 증금 호텔. 대지 850평, 건평 2,620평.
5. 서구 광천동 최고 요지 빌딩 (광고효과, 투자까지 최고) 대지 300평, 평당 1700만원.
6. 북구 초대형 사무나 대지 1,932평 건평 2,710평.
7. 서구 지평동 상가 밀집된 중심상업지역 최고 요지. 대지 300평, 평당 1700만원.
8. 송정역 부근 상업지역 내 저렴한 땅 1,150평. (부자유량)

☎ 956-6660 / 010-2139-6255

상무랜드공인중개사

토 지(매매)

- 용 도 •
전원주택, 과수원
연수원, 절, 한옥마을 등
- 면 적 •
16,789평방미터(약5,078평)
- 위 치 •
백암산(장성중위)
- 대표지번 •
장성군 북하면
쌍용리7-14번지에17필지
- 매각금액 •
5945천만 원

■ 설 명 ■

위 토지는 장성 백암산폭포 아래로 5,078평 전부가 사용가능한 토지로서 최정후 우택호의 지형을 완벽히 갖추고 있는 땅으로 본토지에서 남쪽으로 장성호가 내려다보이며 본토지의 좌우로 개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5, 6년 전 이미 토지의 토목작업이 다 되어있었으나 지금은 다소 잡초가 우거진 상태입니다.

1. 본토지는 한옥마을로 적합하며
2. 또한 전원 농장을 겸한 가족주택
3. 오염원이 전혀 없는 과수원
4. 조용한 절기도원
5. 회사인 연수원등으로 적합합니다.
- 진입로가 다소 협소하나 1톤트럭은 마음대로 가능함

본토지는 당 중개업소에서 전속으로 중개하고 있습니다.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필요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핸 010-3609-5221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옆, 대인동 송정서점내편)